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가우건축 대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는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2017년 이미 14%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돼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출현한 도시정책이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 제주는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해, 2017년 WHO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2019년에는 서귀포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고령친화도시 제주 : ‘시설’ 아닌 ‘건축’을 중심으로...

이처럼 제주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정책이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던 것은 청정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여전히 활동적인 지역커뮤니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제주는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유산이 있다. 바로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인 ‘안·밖거리 살림집’의 형식이다. 삼대가 한 영역(을담)안에 생활하면서도, 세대 간에 부역(정지)을 따로 쓰며 경제권은 독립돼 있는 구조로서, 적절한 독립과 통합이 조화로운 주거형식이다. 이미 제주 전통민가에는 고령친화도시의 연령통합형 개념이 담겨져 있던 것이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건축학도들마저도 ‘안·밖거리 살림집’을 처음 듣는다는 학생이 대부분일 정도로. 제주 전역이 아파트와 같은 보편적 주거로 급속히 대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선제적 선언에

도 불구하고 고령친화도시를 향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특히 주거부분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양산된 주거로는 육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삶을 담아낼 수 없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주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데 응이한 집단적 시설에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누군가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마무리하고픈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욕망을 강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설’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해법은 주거건축이 거주자의 나이에 따라 고령 친화적으로 변이할 수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의 전략은 노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축’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심된 것이라면, ‘시

설’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가 만들어낸 물리적 하드웨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성이 넘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실행사업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마을마다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기존시설의 건축적 재생이 급선무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최소단위로 할 수 있는 건축, 곧 ‘집’의 고령친화형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민가의 공간구조를 재해석해, 거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신축·개조 건축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제주형 고령친화도시는 다른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제주만의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제도와 정책에 수반된 ‘시설’이 아니라 ‘건축’이 중심된 전략이 수립돼, 다음세대를 여는 혁신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불통의 제2공항, 해법찾기 갈수록 태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찬반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간, 지역간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제2공항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2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이 4일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 이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게 됩니다. 환경부도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분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막과파식으로 추진해 심히 우려됩니다. 제2공항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서울로 행동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지난 1일 광화문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공론화’와 관련 청와대가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비상도민회의는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결성해 결사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제주도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절실한 제2공항이 점점 불통으로 치닫고 있어 해법찾기도 요원합니다.

치매 환자 돌봄위해 실직까지 하는 현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치매는 여전히 환자나 가족에게 두렵고 부담이 큰 병입니다.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안겨줍니다. 제주지역 실정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간병에 4명중 1명꼴로 부양가족이 실직을 경험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1일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제주도에 치매환자 부양의 어려움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치매 환자 돌봄 기간은 평균 4년 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5~10년 장기간인 경우도 16.4%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9.6시간으로 활동시간 대부분을 간병에 허덕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사 대상 가운데 111명(24.9%)이 치매환

자 부양으로 인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족간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치매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 길이 멍니다. 일례로 제주도에 치매안심센터 6곳이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근무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률은 10.98%로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시설과 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과 치유,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탐라문화광장을 도민 품으로



이 명 랑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지전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표로 조성된 것이 이듬해 ‘탐라문화광장’이다. 탐라문화광장은 2017년 3월에 완공됐으나 주취자와 노숙인들이 점령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판을 벌이거나 노숙을 하면서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로인해 활성화는커녕 광장의 이미지가 추락해 탐라문화광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탐라문화광장을 거점장소로 도보순찰을 강화해 노숙자나 주취자들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했다. 순찰과정에서 때로는 고성이나 오가기도 했고, 주취자를 달래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노력한 결과 주위 환경이 개선되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탐라문화광장이 읍무청정지역으로 지정돼 더 이상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으며 경찰관으로서 적법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도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게 됐다. 최근 탐라문화광장 일대는 탐라문화제와 문화의 달 행사 등 여러 가지 지역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더불어 페스티벌과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도 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탐라문화광장이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오랫동안 제주도민들의 품 안에 안겨 있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학생, 삶의 주체로 바라보며 교육 혁신”

이석문 교육감 의지 표명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3일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표명. 이 교육감은 4일 기념사를 통해 “90년 전 광주 학생들은 일제의 부당함에 독립 운동으로 저항했다”며 “90년 전 학생들은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일제에 항거했다”고 평가. 이어 “역사는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살 수 있도록 ‘한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질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제주시 9명 사무관 임용 합격

○…제주시가 올해 하반기 사무관 승진 의결자 9명을 정식 승진 임용하면서 조직에 활력을 기대. 고희범 시장은 지난 7월 사무관 승진 의결된 후 지방자치인재개발

원에서 6주간의 승진리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에게 4일 임용장을 전달하고 시정 현안 추진에 중진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제주시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 의결자들을 정식 승진임용 함으로써 승진의 기쁨과 동시에 제주시 조직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 고대로기자

제주학센터장 세 번째 공모

○…제주연구원은 4일 두 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었던 제주학 연구센터장(전문연구위원)에 대해 또 한번 재공고를 진행. 제주도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공모는 응시자가 1명이어서 진행하지 못했고 2차엔 2명이 응모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모두 불합격. 11월 8~14일 접수하는 이번 재공고는 지원자가 1인 이하에도 심사를 진행하고 임용 기간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로 전선화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국산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감귤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탐나는봉 · 왕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라살생 · 궁전(궁전번이지)
하계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모
010-2691-1883
010-3055-1885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심서!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건제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